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섬세한 교통대책이 사고 줄인다



노경수

과거 우리 도시는 도보 시대에서 마차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동차의 시대로 진입했다. 그래서인지 이미 자동차는 우리의 삶에 필수품이 되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제반제도나 교통시설, 교통문화는 아직도 뒤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공해를 비롯한 자동차의 다른 특징은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될 수 있지만, 빠른 속도와 넓은 점유면적은 자동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

지난해 광주지역의 교통사고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는 소식을 접하니 이 지역의 운전자로서, 또 도시를 계획하는 전문가로서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다. 광주시 차량 1만대 당 교통사고 건수는 168.9건으로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7대 도시 평균 125.8건, 2위인 대구가 137.1건, 3위인 서울이 129.8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높아도 너무 높다. 차량 1만대 당 사망자 수 또한 2.2명으로 전국 7대 도시 평균 1.8명을 0.4명이나 뛰어넘었다. 사고도 많고 사고피해 정도도 더 나쁘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광주시 경찰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섰다 하고 하니 앞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왜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은 지워버릴 수 없다.

우선 사람의 행위나 습성은 인간 본연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는 주장과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은 언제나 팽팽히 맞선다. 일반적으로 이를 환경기능론과 환경결정론이라고 하는데,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인간의 행위는 자기 의지로 결정하면 환경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환경기능론이라면, 맹모삼천지교나 풍수사상에서와 같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고가 환경결정론일 것이다.

광주의 '교통사고 광역시 1위, 사망자 1위'의 가장 큰 원인은 '전라도 기질'이라고들 한다. 신호대기를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으로 인해 신호를 위반하고, 방향지시등은 아예 조작하지 않고, 조금 빨리 가겠다고 대기행렬이 길게 있는데도 당당하게 끼어드는 얌체 운전, 집에 불이

라도 난 것처럼 무조건 내달리는 과속운전, 아무 곳이나 빈 곳이면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사람, 출퇴근 시에도 도로 위에서 차를 세우두고 육신각신 양보하지 않는 이러저러한 군상들이 다 그 기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교통사고 줄이기 거리캠페인, 안전교육과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신호위반과 끼어들기, 음주운전,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를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경찰과 함께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질이 제대로 단속될 지는 미지수다. 단속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그것은 곧 다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도시는 도보 시대에서 마차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동차의 시대로 진입했다. 그래서인지 이미 자동차는 우리의 삶에 필수품이 되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제반제도나 교통시설, 교통문화는 아직도 뒤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공해를 비롯한 자동차의 다른 특징은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될 수 있지만, 빠른 속도와 넓은 점유면적은 자동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자동차는 사람의 몸과 같이 유기체가 아닌 강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 속도도 사람의 움직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는 보행자의 100배 정도 면적을 차지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이와 같은 자동차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교통문화와 교통환경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의 운행행태를 잘못 파악한 형식적인 교통시설, 교통량에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신호주기, 자동차의 동선에 맞지 않는 차선, 부족한 주차장

등의 상황에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준법정신 강조나 교통질서를 지키라고 교육, 단속만 하는 것은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광주시는 2014년까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에 1686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고 또한 세부 투자사업부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었지만,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이고 섬세한 자료에 근거해서 세부 사업부문이 선정되어야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 광주지역이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보장보험 등의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고로 입원한 보험 지급액이 정상 근무한 보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조그마한 사고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지역경제의 척박한 사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만 받아드리기엔 왠지 씁쓸하다.

어쨌든 한번 만들어진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는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 광주·전남에서 굵직한 국제적 행사가 많이 치러질 예정이고 찾아올 많은 국내·외 손님들에 이만 광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광주가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라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인천 자동차 경주장 건립 철회가 順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에 국제 자동차 경기장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인천의 '자동차경주장 건설 및 활용 계획'이 전남도가 F1 경주장 일대에 조성하려는 '모터 스포츠 복합레저도시 사업'과 대부분 겹쳐 지역 간 갈등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자동차경주장 건설은 순리(順理)가 아니다. 이미 타지역이 선점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을 곧바로 따라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자동차 경주 마니아들이 많은 수도권인데다 인천 국제공항이 자리 잡은 인천에 자동차경주장이 들어설 경우 전남 F1은 물론 이를 활용할 모터 스포츠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늘부 심보'라 할 수 있다.

실형 인천경제청의 구상대로 인천에 자동차경주장이 들어서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 자동차 경주장 인구가 많지 않아 관람객 유치 등 주변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의 F1에 이어 인천까지 가세한다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 결국, 상생과 시너지 효과는커녕 둘 다 망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은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 경주장 건립 계획을 세웠다가 전남의 F1대회와 중복돼 지자체 간 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다시 재추진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자동차 경주장 건설에 따른 득과 실을 지역적 관점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면밀히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정부도 국가 균형발전을 해치고 국익을 낭비하는 지자체 간의 무분별한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장래 인구 '부풀리기' 관행 시정돼야

광주시가 장래 인구 지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예산·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수를 180만 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2018년부터 광주시 인구가 감소해 오히려 2025년에는 141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두 기관 간의 오차가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도시계획상 장래 인구지표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각종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예산 및 자원 낭비는 물론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세 있는 하마'가 된 제2순환도로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설계 당시 인구 증가에 따른 통행량을 하루 8만3000여 대로 잡았으나 실제 통행차량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 3만4000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민자

회사 측에 연간 300억 원을 보전해주고 있다. 잘못된 인구 및 수요 예측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장래인구 부풀리기는 비단 광주시만의 일이 아니다. 현재 16개 시·도의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장래 목표 인구의 총합은 약 5400만 명인데 이는 통계청의 인구예측치와 500만 명이 나 차이나 난다. 이는 대다수 지자체가 장래인구 지표를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면밀한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보다는 도시성장 측면만 생각하고 무조건 인구 수를 부풀리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자원운용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 인구목표 '뿔뿔이'는 시정돼야 한다.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와 총합계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통계청이 추계한 규모보다 일정비율 이상 많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無等鼓

2007년 3월 19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빅마트 풍암점.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 하상용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빅마트의 18개 점포 중 15개를 롯데쇼핑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전 롯데쇼핑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날 공식적으로 매각 사실을 알리고 남은 3개 점포로 재도약을 기약하겠다고 밝힌 자리였다.

마트는 결국 지난해 12월 나머지 매장까지 롯데 측에 넘겨주고 법정관리 신세가 됐다.

SSM의 골목상권 공세가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 통과를 앞두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리점주를 내세운 가맹점 방식으로 우회 입점을 노리면서 지역 상인 간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토지·건물·영업권을 포함해 8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무거웠다. 빅마트 직원들은 고용승계 약속에도 표정이 밝지 않았다.

급기야 10일에는 입점을 놓고 대리점주와 지역 상인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대리점주들은 자율경쟁 논리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곧바로 롯데쇼핑은 인수한 빅마트 매장을 롯데슈퍼란 간판으로 바꾸었다. 광주지역 최초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은 이렇게 시작됐다. 골목상권의 초토화가 시작되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소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를 따져봐야 한다. 당장 편의점의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착한 소비'가 절실한 때다.

빅마트로 상징되는 토종 유통업체는 대기업의 물량공세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이젠 동네 구멍가게까지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 매장 3개로 버티던 빅

마트는 결국 지난해 12월 나머지 매장까지 롯데 측에 넘겨주고 법정관리 신세가 됐다. SSM의 골목상권 공세가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 통과를 앞두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리점주를 내세운 가맹점 방식으로 우회 입점을 노리면서 지역 상인 간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급기야 10일에는 입점을 놓고 대리점주와 지역 상인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대리점주들은 자율경쟁 논리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소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를 따져봐야 한다. 당장 편의점의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착한 소비'가 절실한 때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종교칼럼



시동

“세상에는 비밀이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밀이 없는 사람은 껌데기 인생이다”라고 외친다.

추기만 하면 어떤 물체든지 환하게 비추듯이 인간의 마음을 비춰 보는 거울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열 책상이 같이 앉아 있는 남녀 사무원들끼리 그 거울을 비춰 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을 명경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럴 때면 나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 한쪽에서는 세상에 비밀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한 편에서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공허한 껌데기 같은 생활밖에 못한다고 하니 참말로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의미의 말 같기도 하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비밀이 없는 사람은 공허한

참으로 세상이란 무미건조(無味乾燥)하여 살맛이 없어질 것은 물론 갈등과 투쟁은 한층 더 격렬해질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즐겁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마음속의 비밀

삶이란 말은 인간의 마음을 두고 말한 것 같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정의 격돌만 더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일이란 우리를 주변을 잠시만 둘러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인간이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하지 않고 있으면 쓸쓸한 사마를 걷는 것처럼 고독하고 공허해서 세상 살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간직한 마음의 비밀은 영원히 비밀인 채 껍데기 싸서 감추어 두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를 깨워주는 놓는 개방적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다.

가령 자기 혼자만이 어떤 사람을 사모하여 은애(隱愛)하면서 그윽한 연정에 빠져들거나 한 번도 입밖에 고백해 보지 않은 자기 혼자만의 비밀을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보람된 일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의 보화처럼 몇 개 안 되는 마음의 비밀만은 껍데기 속에 든 소라처럼 깊숙이 감춰 두는 예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허전한 마음을 메워 주는 청량제 같은 것이란 말인가.

마음을 비밀을 가진다는 것 마음속에 비밀을 갖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생각해 보면 로맨티스트의 푸념 같기도 하지만 어느 면으로는 하나의 진리 같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고독하고 쓸쓸할 때 공허감이 온몸을 엄습해 올 때 조용히 마음의 비밀을 풀어 해쳐 놓고 정답게 어루만지고 손질하고는 다시 혼자만이 간직한 비밀 창고에 감추어 둔다면 그것만으로 위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비밀이 가려지는 인간 심성에 무개를 더해주는 깊숙하고 그윽하고 은밀한 깊은 곳을 마련해 주는 미덕을 가져오는 것 같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것은 내가 청소년기 호기심 많을 때의 일인데 그 마음이 이제 지천명(知天命)을 훌쩍 넘길 때까지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나는 아직까지 청소년기에서 벗어났는지 못한 철부지처럼 느껴진다. 만일 인간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거울은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것을 비추고 흰 것이 오면 흰 것을 비춘다. 저와 같이 비

〈장성 백양사 주지〉

기고



강춘석

무심코 달력을 넘기다 보니 올해도 어느덧 두 달밖에 남지 않은 11월에 다다랐다. 이맘때면 유독 생각나는 법정 기념일이 하나 있다. 바로 불교 한 세기 전,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인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다.

순국선열이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를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을 수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193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임시의정원 정기회의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11월 17일로 정한 배경에는, 1905년 을사늑약에 행해진 조약이라는 탈을 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점을 분명하게 국내외에 알리고, 조약이 강제 체결된 11월 17일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순국하여 이 날을 잊지 말고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자는 예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그 입장이 바뀌었다.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음은 물론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G20정상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고도로 상승하고 있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온 국토가 폐허가 된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순국선열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과거 역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정치적·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安危를 뒤로 한 채 송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한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라도 선공후사와 위국헌신의 민족정신을 몸소 실천한 순국선열들의 후손으로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자. 또한 국내·외에서 조국의 광복운동을 전개한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화합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길 제안해 본다. ‘순국선열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순천보훈지정장>

대한민국이 지금의 정치적·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安危를 뒤로 한 채 송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한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라도 선공후사와 위국헌신의 민족정신을 몸소 실천한 순국선열들의 후손으로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자. 또한 국내·외에서 조국의 광복운동을 전개한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화합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길 제안해 본다. ‘순국선열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순천보훈지정장>

올해 11월 17일은 제71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왜 민족 최대 처욕의 날 중 하나인 이날을 그 기념일로 정하고, 조국광복 다짐과 순국선열의 송고한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다짐했는지 그 깊은 뜻을 오늘날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과 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